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가족긴장이 학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family strai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schools
: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GST)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 전공
김혜진

가족긴장이 학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family strai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schools :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

지도교수 이 태 진

이 논문을 김혜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김 혜 진

김혜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u> 유 승 현 </u>	(인)
부 위 원 장	<u> 민 경 복 </u>	(인)
위 원	<u> 이 태 진 </u>	(인)

국문 초록

연구배경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문제와 이로 인한 건강 및 사회영향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 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의 위험요인을 Agnew의 일반 긴장이론에 근거하여 밝혀보고자 하며, 나아가 두 관계에서 중독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10-19세 이하 청소년 33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가족 내 부정적 자극 및 경험을 나타내는 가족긴장으로 한부모 가정, 가정 폭력, 부모의 알코올, 도박, 약물 문제경험을 포함시켰고, 종속변수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스마트폰 중독척도(S-척도)를 활용하여 중독을 진단하고, 잠재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스마트폰 중독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적으로 만들어주는 조건변인으로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만족을 포함시켰다.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조건요인의 영향은 가족지지, 부모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만족도를 각각 높은 집단과 높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하위그룹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긴장의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한부모 가정청소년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게 높지 않았으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OR=1.7$ 95%CI 1.2-2.4)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청소년($OR=2.02$ 95%CI 1.2-3.3)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긴장을 경험하더라도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는 조건요인의 영향을 탐색해본 결과 가족의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 만족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서만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모든 가족긴장요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조건요인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조건요인 중에서 자기통제가 가장 중요한 조건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긴장요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은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위 두 가족긴장을 경험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족의지지 수준이 높거나,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거나, 자아의 통제수준이 높거나, 또래관계만족도가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주요어: 가족긴장,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일반긴장이론,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학번: 2015-24030

목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II. 이론적 배경	6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6
2. 일반긴장이론 (General Strain Theory: GST)	16
3.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21
III. 연구의 모형	23
IV. 연구 방법	24
1. 연구자료 및 대상	24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5
3. 분석 방법	32
V. 연구 결과	33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긴장	3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40
4. 대상자의 인터넷 주이용 콘텐츠 및 사용이유	42
5.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48
6.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에서 조건요인의 영향	51
VI. 고찰	60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60
2. 함의 및 한계	72
VII. 참고 문헌	78

〈표 차례〉

표1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1
표2 . 조건요인의 조작적 정의	28
표3 . 주요변수	31
표4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4
표5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긴장	38
표6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41
표7 .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50
표8 .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가족지지의 영향	53
표9 .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부모통제의 영향	55
표10 .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또래관계만족도의 영향	57
표11 .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자기통제의 영향	59

〈그림 차례〉

그림1 . 연구 모형	23
그림2 . 대상자의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	45
그림3 . SNS 사용 목적	46
그림4 . 온라인 게임 이용 이유	47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스마트폰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보편적 모바일 기기로 2015년 기준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전 세계 주요 56개국 중 4위를 차지하며 성인의 8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t경제연구소, 2015). 이 중 초등학교 고학년 보유율은 72.3%, 중고등학생은 90%를 상회하고(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동시에 해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어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핵심매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유입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지닌 순기능과 함께 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야기되는 중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의 기능이 합쳐진 형태로 기존의 청소년 문제였던 인터넷 및 게임중독, 휴대전화 중독이 총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2015년 한국 정보화 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6.2%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의 경우 31.6%로 성인

(13.5%)의 2.3배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전년 대비 2.4%p증가한 수치로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 특히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주목되고 있는 데에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증거가 다수 보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은 척추 측만증, 손목터널 증후군,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고, 우울, 불안, 분노조절 능력상실 등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며, 나아가서는 가정과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 및 비행을 야기한다고 보고하고 있어(문두식, 최은실, 2015) 스마트폰 중독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청소년 문제행동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정부 각 부처는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국가차원의 중독 예방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의 정책과 부모교육을 통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한 예로 ‘중독취약계층 (한부모,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해 상담사 파견 및 방문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 정책에서 정책 대상자는 기존 청소년 일탈 및 문제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며, 대상으로 선정된 취약층을 위한 교육 및 관리가 양적으로는 강화되어 있으나 대상자

의 높은 중독 상태를 야기하는 구체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각 취약가정(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입증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어떤 가정이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지 새롭게 발굴하여, 취약가정의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학계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원인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현재까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초래하는 원인은 개인의 심리, 가족환경, 학교 및 또래, 스마트폰 기기특성 등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가족환경은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요인보다 강력하기 때문에(김재엽, 2001) 스마트폰 중독을 겪게 될 위험을 높이는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환경에 관한 논의는 아직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가족의 응집성, 부모와의 의사소통방식,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지지(전대성, 2015)와 같이 가족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련성을 보호요인의 관점에서 밝혀왔으나, 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사건 및 부정적 자극과 같은 가족 내 위험요인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경험, 학대, 낮은 소득, 한부모 가정, 부모의 음주문제, 부모의 알코올중독(신선인, 2008; 이재엽, 1998; 이시연, 2014; 김혜련, 2010)을 청소년 문제행동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결론지었고 청소년의 새로운 문제행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또한 가정 내 부정적 사건 및 자극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위와 같은 정책적, 학문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그동안 연구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요인을 가정 내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하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족 내 위험요인이라는 연구주제를 통일성있게 논의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정황에 문제가 제기되는 여러 가족 형태 중 대표적 위험요인인 한부모 가정에 주목하고자 하며, 기능적 위험요인으로 대표되는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에 연구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가족환경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들 집단의 중독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요인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및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 긴장이론을 바탕으로 가족 내 부정적 자극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하며, 동시에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요인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 및 콘텐츠 사용의 빈도와 분포를 각각 추정하고 이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2)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가족 내 부정적 자극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한부모라는 가족형태, 가정폭력,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3)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조건요인의 영향을 파악한다. 가족 내 부정적 자극의 노출이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 만족도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즉,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네 요인(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 만족도)에 따라 조건적인지 확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1)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 및 측정

중독은 일반적으로 술, 담배, 마약 등에 생리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물질중독을 일컫지만 최근에는 도박중독, 일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과 같은 행위중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Griffiths, 1999). 중독은 ①행동전의 갈망, ②행동의 통제상실, ③부정적 결과를 인지함에도 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자신 혹은 주변 및 사회에 피해를 유발함에도 통제력을 잃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김교현, 2002; 김교현, 2006). 학술적으로 중독에 관한 논의는 크게 심리적, 인지신경생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학습과 기억기제로 중독을 설명하고, 인지신경생리학에서는 공통적으로 뇌의 도파민과 관련 보상회로의 자극으로 중독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회학에서는 중독이 인간의 자기조절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이 중독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김교현, 2007).

과도한 미디어 사용에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Goldberg(1996)의 인터넷 중독이란 용어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중독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은 DSM-V¹⁾의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과 유사한 충동조절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로 행위중독의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은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명확한 진단근거와 개념이 합의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유입이 2010년 이후 본격화 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관심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스마트폰 기능의 발전과 다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스마트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단정지어 개념화하기 어렵다는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스마트폰은 중독을 유발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SNS, 게임, 도박, 성인물)을 제공하는 ‘환경’에 중독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을 개념화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조연하, 2012)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을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 휴대전화 중독의 개념과 진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발전

1)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DSM-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행위중독에서는 도박 중독만을 진단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스마트폰 관련 중독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 게임중독(internet gaming disorders)를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한 증상(conditions for further study)로 선정하였다.

시켜 사용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는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호경, 이민석, 김홍국(2011)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일탈 및 부적응에 이르며, 스마트폰에 집착과 의존, 내성을 동반하며, 중단시 불안감을 느끼는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및 게임 중독과 대별되어 나타나는 스마트폰 중독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반영할 수 있는 중독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

스마트폰 중독 척도 또한 인터넷 및 게임 중독의 진단척도에서 발전시킨 형태로 개발 및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2011년에 개발한 S-척도로 청소년과 성인용 각 15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하위요인으로 금단(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초조감에 시달리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심리적 불편이 사라짐), 내성(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점점 증가하며, 자극적으로 변함), 가상세계지향(면대면 관계보다 온라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고, 더 친밀감을 느낌), 일상생활장애(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부적응 문제를 경험함)로 구성되어 있다.

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탐색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기존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검증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개인의 심리요인, 가족환경요인, 학교 및 또래요인, 가족환경요인,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기기의 고유한 특징적 요인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자아 존중감, 자기통제, 충동성, 자기 효능감, 우울 등이 제시되었으며, 가족환경요인으로는 가족기능성, 가족의지지 부모관심,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통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제시되었다. 또한 또래 및 학교요인으로는 친구의지지, 친구의 영향력, 교사의지지, 친구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교성적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으며, 스마트폰의 각종 기능적 특성과 사용시간 콘텐츠가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는 <표 1>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무수히 많고, 중요하지만 가정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이며, 청소년기가 학교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에게는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 부모와의 관계가 행동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까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환경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완화시켜주는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었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행동에 있어서 보호요인보다는 위험요인의 설명력이 크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으로 가족이 겪는 부정적 자극 및 경험을 중심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표 1.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분류	저자 (년도)	대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 결과
개인 심리 요인	오주 (2014)	초등학교	자아 존중감, 충동성	스마트폰 중독	자존감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초등학교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음
	김정현 외 (2015)	청소년	자기 효능감 (조절: 아버지 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관계가 있음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함.
	여종일 (2016)	중학생	외로움 (매개: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중독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음.
	이성철 외 (2014)	청소년	우울 사회불안	스마트폰 중독	개인의 우울과 사회불안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
	박경원 외 (2015)	중학생	자아존중감, 우울, 충동성	스마트폰 중독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으나 충동성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이상준 (2015)	청소년	충동성, 우울	스마트폰 중독	충동성과 우울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음.
	Masahiro Toda et al. (2015)	university student	chronotype, depressive state	smartphone dependence	Eveningness and depressive state are predictive factors of smartphone dependence.
	Yejin Kim et al. (2016)	Adults	Behavioral Inhibition and Activation System, Impulsivity and Self-control	smartphone addiction	female and Behavioral Activation System(BAS) - Drive scores and self-control were crucial 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권미란 외 (2010)	청소년	가족형태	인터넷 중독	결손가정의 인터넷 중독 위험이 높으며,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부적응 행동의 매개효과도 검증됨
고재수 (2014)	청소년	가족의 기능성 (매개: 스마트폰 중독)	학교적응유연성	가족의 기능성은 스마트폰 중독에 부정적 영향, 학교적응유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확인.
오주 (2014)	초등학교생	부모통제, 부모관심	스마트폰 중독	부모통제수준이 높고, 부모관심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낮아짐.
여종일 (2015)	청소년	가족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스마트폰 중독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중독성이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함
김영미 (2015)	청소년	부모-자녀 의사소통 (매개: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중독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낮아짐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함.
배성만 (2015)	청소년	가족관계	스마트폰 중독, 정서적 문제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낮음
Sung Man Bae (2015)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style	addictive smartphone use	Warmth, supervisory and rational explanatory parenting style(democratic parenting style) negatively related to addictive smartphone use.

가족 환경 요인

박경원 외 (2015)	중학생	교사 및 또래 지지, 부정적 또래 압력, 비행 또래 접촉, 학업 성적, 학업 스트레스	스마트폰 중독	학업 성적이만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이상준 (2015)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친구의 영향력, 교사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사용에 대한 정보와 사용동기에 대해 친구의 영향력이 클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높으며,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낮음
이정은 외 (2015)	초등학교 고학년	대인관계만족도	인터넷 게임중독,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경향을 낮추며, 정서적 문제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배성만 (2014)	중학생	친구관계 만족도	휴대폰 중독적 사용	친구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초기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낮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구관계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감소가 가속화됨
박경원 외 (2015)	중학생	스마트폰 사용시간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음
황하성 (2011)	만15세 이상	무선인터넷, 모바일서비스, 멀티미디어기능, 인터넷이스, 멀티태스킹	스마트폰 중독	모바일서비스, 멀티미디어, 인터넷이스, 스קי의 기능적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됨.
박성복 외 (2014)	대학생	어플리케이션 이용	스마트폰 중독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와 오락이나 동영상 감상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성이 있음
Se-Hoon Jeong et al. (2016)	elementary school students	SNS, Game	Smartphone addiction	Although SNS use and game use were positively affect smartphone addiction, SNS was stronger predictor of smaphone addiction.

또래 및 학교 요인

스마트폰 이용 요인

3)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정책

2015년 제 2차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종합계획(2013-2015)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을 위한 정책으로 크게 예방,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및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구성, 전문 시설 및 상담인력 양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현 정책은 수요층의 요구에 맞게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등의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시설 구축을 확대하여 중독대상자의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특히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에 콘텐츠를 감안한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책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계층으로 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맞벌이 가정을 선정하고, 가정에 상담사 파견,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에 취약한 가족구조에 중점을 둔 단순하고 포괄적인 접근이며, 정책 수혜자의 입장이 아닌 정책 입안 및 시행자의 입장에서 정책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대상자 선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계층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가정이지만 중독 위험이 높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과연 정책에서 제시한 취약계층이 스마

트폰 중독에 취약한지, 어떤 가족이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집단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현 정책이 제시한 다양한 가족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가족 내 위험요인인 한부모 가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2. 일반긴장이론 (General Strain Theory: GST)

1)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행동 이론적 접근

기존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청소년 문제행동이라고 명명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기존 청소년 문제행동의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란 현재 사회의 통상적 규범이나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 사회적 혹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행동양식으로 일컬어지며(장여옥, 2014) 그 예로 심리적 문제행동, 가정부적응행동, 성 일탈행동, 범죄행동, 폭력행동, 유해약물 오남용행동, 유해미디어 이용행동 등이 있다(최인재, 이기봉, 김청송, 2010). 하지만 이재분, 현주, 박효정(2003)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문제행동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처럼 학자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따라 특정행동을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장여옥 2014).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 문제로 최근 3년 사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하였으며,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새로운 문제행동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차별적 접촉)이론, 자기통제이론이 주로 언급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관심있게 다루고자하며 일반긴장이론은 위 세 이론(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자기통제이론)의 통합적 성격을 띠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이성식, 2003). 사회유대이론은 사회와의 유대와 애정적 결속력이 깨질 때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Hirschi, 1969), 학교 및 가족 간 강한 유대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비행동기를 통제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적 접촉이론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또래 및 주변인들과 차별적 접촉을 통해 문제행동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Sutherland, 1947). 마지막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범죄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며, 즉각적 만족과 충동을 조절하는 요소는 자기 통제력이라고 주장한다.

일반긴장이론은 일상적인 긴장상태에 노출되면 그로인한 부정적 감정의 발생으로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되는데 모든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에서만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 조건변인으로서 사회유대이론에서 강조하는 부모와의 애착 및 관여,

문제행동에 대한 태도 및 도덕적 신념을 제시하였으며, 사회학습(차별적 접촉)이론에서 강조하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일반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자기 통제력이나 충동성을 포함할 수 있다(이성식, 2003).

본 연구에서 일반긴장이론의 접근방식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기존 청소년 비행 이론을 통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족 내 부정적 자극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부정적 자극을 경험한 청소년이라도 중독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2)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GST)

고전적 긴장이론(Merton, 1938)은 대표적 범죄이론으로 금전적 성공이나 부의 획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하층민들이 불만과 좌절을 겪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경제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로 인한 긴장을 문제행동과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중산층의 범죄를 설명하지 못하며, 청소년의 범죄가 부의 획득의 좌절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의 범죄는 금전적, 사회적 성공과 같은 장기적 목표의 좌절로 인한 것이 아닌, 학업성취나 친구 및 선생님으로부터의 인정과 같은 단기적 목표달성에 실패했을 때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관계, 이성친구와의 이별과 같이, 계층과는 무관하게 모든 계층이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어려움과 긴장상태를 범죄와 문제행동의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긴장이론에서 좌절과 긴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긍정적 목표달성의 실패(Failure to Achieve Positively Valued Goals)이다. 긍정적 목표달성의 실패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기대한 바와 가능성 사이에 괴리, 기대한 바와 실제 성취간의 괴리,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와 실제

결과간의 괴리를 말한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Removal of Positively Valued Stimuli)이며 부모의 사망과 친구의 상실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사물의 소멸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체벌과 폭언, 부모의 학대와 폭력과 같은 부정적 자극의 발생(Presentation of Noxious Stimuli)을 제시하며, 이는 청소년 범죄행위와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긴장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위의 세 가지 원인으로 청소년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행동이나, 일탈, 범죄와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긴장을 겪게 되는 모든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사회적지지, 부모의 통제와 같은 조건변인에 따라 긴장이 바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긴장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유대가 낮거나, 충동적이며, 문제행동에 허용적이고, 자긍심이 낮으면 비행을 포함함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은 긴장을 경험하더라도 문제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가정에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사건이나 자극은 다양하며 개인마다 다르지만, 일반긴장이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족긴장이라고 일컫는 부정적 경험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사망이나 이별,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이 있다. 먼저, 빈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빈곤이 다른 위험요인과 결합했을 때 문제행동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S. &E. Glueck, 1962). 즉 박탈감의 경험, 사회적 자본의 악화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둘러싼 비행의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강경래, 2014). 또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자녀의 심리 및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공격성, 우울감, 자아존중감 저하와 같은 정서문제와, 학교 부적응, 폭력등의 행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이충권 외, 2015). 청소년에게 가정폭력의 경험, 아동학대, 부부간의 폭력 목격은 우울, 공격성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자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자해 등의 심각한 외현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박주희, 2014).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자극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결정적 원인으로 주목받아왔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및 게임, 휴대폰 중독

관련 연구에서도 다수 입증되었다. 김나예(2015)의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경험이 아동의 게임중독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지지가 게임중독 위험을 조절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현수 외(2004)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공격적 대화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바 있다. 또한 권미란(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 위험을 검증한 결과 일반가정외 경우에 한부모 가정보다 인터넷 중독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인터넷과 게임의 기능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가정에서 경험한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독의 강도가 다른 수단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의 모든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족의 긴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사별, 별거의 결과인 한부모가정, 가정 폭력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취약가정의 스마트폰 중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II. 연구의 모형

청소년의 가족긴장이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본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선행연구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3가지를 가족긴장으로 선정하고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 통제, 또래관계 만족도의 조건적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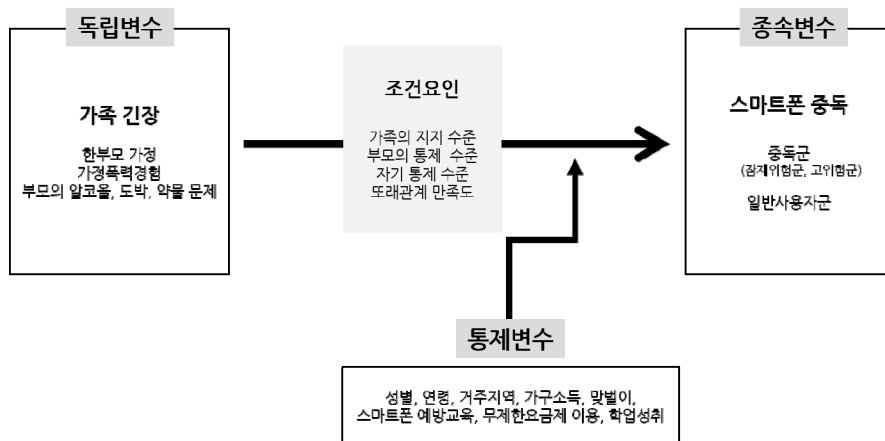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 위험군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등 중독 현황과 영향요인, 정책이슈 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전국단위 조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많은 전문가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자료에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관련 문항, 서비스 유형별 사용관련 문항, 인터넷 중독 인지도, 스마트폰 이용, 심리사회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조사되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조사에 응한 만 10세 -19세 이하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휴학, 중퇴, 미진학의 이유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학생은 제외하여 총 3561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분석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3380명으로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독립변수

(1) 가족긴장요인

일반긴장이론에서 긴장이란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의미하며 가족 내 부정적 자극 혹은 긍정적 자극의 소멸 이라고 볼 수 있는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경험, 부모의 알코올, 도박, 약물 및 기타중독 경험을 가족긴장이라고 분류하였다. 한부모 가정은 조사원의 면접 후 기록으로 할당된 문항인 한부모 가정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대상자이며, 가정폭력경험은 가정폭력 경험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약물, 음주, 도박문제 경험에 “그렇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이라고 분류하였다.

(2) 조건요인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변인으로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 관계 만족도를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네 가지 조건요인 모두 ‘높음’과 ‘높지 않음’ 두 범주로 분류하였다.

먼저 가족의 지지는 ‘나는 우리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우리가족은 나를 이해한다.’, ‘우리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다.’, ‘나는 우리가족에 만족한다.’의 네 4점 척도문항에서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부터 적어도 두 문항에 ‘매우 그렇다’, 나머지 두 문항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까지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음에, 그 외에는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지 않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4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4-13점은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지 않음, 14-16점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족의 지지가 높음으로 범주화하였다.

부모통제수준은 ‘부모님과 나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 혹은 약속을 갖고 있다’, ‘부모님과 나는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유익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의 세 4점 척도 문항에서 세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과 한 문항에 ‘그렇다’ 나머지 세 문항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을 부모통제 수준이 높음,

그 외는 부모통제 수준이 높지 않음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3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11-12점인 경우 부모 통제 수준이 높음, 3-10점인 경우 부모 통제수준이 높지 않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자기통제수준은 ‘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 ‘나는 매사에 절제력이 있다’의 두 4점 척도 문항에서, 두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과 두 문항 중 한 문항에서 ‘그렇다’, 나머지 한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자기통제수준이 높음에 그 외에는 자기통제수준이 높지 않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두 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2-6점인 경우 자기통제 수준이 높지 않음, 7-8점인 경우 자기통제수준이 높음으로 범주화하였다.

또래관계 만족도는 ‘나는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 한다 (가족제외).’, ‘나는 오프라인 상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 한다(가족제외).’ 두 4점 척도 문항에서 두 문항 모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과 두 문항 중 한 문항에서 ‘그렇다’, 나머지 한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또래관계 만족도가 높음, 그 외에는 또래관계만족도가 높지 않음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두 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2-6점인 경우 자기통제 수준이 높지 않음, 7-8점인 경우 자기통제수준이 높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조건요인의 설문내용과 범주화한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 조건요인의 조작적 정의

조건요인	질문	총점	범주
가족의 지지	1) 나는 우리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14-16점	높음
	2) 우리가족은 나를 이해한다		
	3) 우리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다	4-13점	높지 않음
	4) 나는 우리가족에 만족한다		
부모의 통제	1)부모님과 나는 스마트폰사용에 대한 규칙 혹은 약속을 갖고 있다	11-12점	높음
	2)부모님과 나는 스마트폰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3-10점	높지 않음
	3)부모님은 나에게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자기 통제	1)나는 위기나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	7-8점	높음
	2) 나는 매사에 절제력이 있다.	2-6점	높지 않음
또래관계 만족도	1) 나는 온라인상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가족 제외)	7-8점	높음
	2) 나는 오프라인 상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가족 제외)	2-6점	높지 않음

2) 종속변수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2011년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S-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내성(4문항), 금단(4문항), 일상생활장애(5문항), 가상세계지향성(2문항)의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군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청소년 자가진단척도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원 점수 총 45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6점 이상, 금단 13점 이상, 내성 14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잠재위험군(원 점수 42-44점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 금단 12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일반사용자군(두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을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고위험군과 잠재위험군을 스마트폰중독군에 포함시켰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학교요인, 스마트폰 기기요인을 통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은 남성과 여성,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범주화 하였으며, 가구소득은 200만원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맞벌이 가정 여부는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다. 중독의 위험요인으로 학교요인은 학업성취만족도를 높음과 높지 않음으로, 스마트폰 기기요인으로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사용을 예, 아니오 로 구분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경험과 미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3 . 주요변수

변수		측정	
독립변수	긴장요인	한부모 가정	한부모 양부모
		가정폭력	경험 미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미경험
	조건요인	가족의 지지	높음 높지 않음
		부모의 통제 수준	높음 높지 않음
		자기 통제 수준	높음 높지 않음
		또래관계 만족도	높음 높지 않음
	종속변수	스마트폰 중독	예 아니오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 여성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 - 400만원 400만원 이상
	중독 위험요인	맞벌이 가정	예 아니오
		학업성취만족도	높음 높지 않음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경험 미경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예 아니오

3. 분석 방법

1) 청소년의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빈도 및 분포의 연관성은 카이제곱 검정을 적용하였다.

2)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조건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조건요인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 또래관계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높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분석에는 SAS 9.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05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3380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4>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1.27% (N=1733), 여성은 48.73% (N=1647)로 거의 1:1의 비율을 보였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재학생 32.13% (N=1086), 중학생이 38.34%(N=1296), 고등학생이 29.53% (N=998)로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가정의 청소년이 10.33%,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가정의 청소년이 52.19%, 4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청소년이 37.49%로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가장 적게 분포되어있다.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은 각각 59.17%와 40.83%로 맞벌이 가정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은 전체 집단의 10.65%(N=360)로 이는 국가지표체계가 발표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인 9.4%(2013)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은 2.16%로 나타났고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은 4.59%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알코올 중독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84%)로 나타났다.

표 4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380)

특성	구분	전체	
		N	%
성별	남성	1733	51.27
	여성	1647	48.73
학교	초등학생	1086	32.13
	중학생	1296	38.34
	고등학생	998	29.5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49	10.33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764	52.19
	400만원 이상	1267	37.49
거주지	대도시	1534	45.38
	중소도시	1555	46.01
	읍면지역	291	8.61
스마트폰 중독	중독군	881	23.99
	일반사용자군	2569	76.01
맞벌이가정	맞벌이	2000	59.17
	외벌이	1380	40.83
한부모 가정	양부모	3020	89.35
	한부모	360	10.65
가정폭력	경험	73	2.16
	미경험	3307	97.84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미경험	3225	95.41
	경험	155	4.59
	알코올 문제	146	84.00
	도박 문제	15	8.60
	약물 문제	13	7.40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긴장

<표5>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부모 가정 및 양부모가정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 학교급, 자기 통제수준, 또래집단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양부모와 한부모 두 집단의 가구소득에 유의한 ($p<0.0001$) 차이를 보였다. 한부모 가정에서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7.5%,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7.22%인 반면 양부모가정의 경우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89%, 월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3.97%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양부모 가정이 20.7%, 한부모 가정이 14.17%로 양부모집단이 유의하게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한부모 가정에서 2.5%, 양부모 가정에서 5.23%로 양부모 가정의 부모통제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 하지만 자기통제수준이나 또래관계 만족도는 양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경험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경험집단에서 남성의 비율(65.75%)이 미

경험집단에서 남성의 비율(50.95%)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23$). 그 외 학교급, 월 가구소득, 거주지, 맞벌이가정여부, 스마트폰 사용여부는 가정폭력경험과 미경험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조건요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한부모 가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가정폭력 경험집단에서 5.48%, 가정폭력 미경험집단에서 20.32%로 가정폭력경험집단에서 가족의 지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7$). 부모통제수준, 또래관계 만족도도 가정 폭력 미경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 가족긴장요인인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집단과 미경험 집단 사이에 성별, 학교급, 거주 지역, 맞벌이 가정여부,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월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200만원 미만인 집단의 비율이 16.13%, 미경험집단에서 같은 집단의 비율이 10.05%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99$). 조건요인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한부모, 가정폭력 경험 가정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은 부모의 중독경험 집단에서 14.84%, 미경험 집단에서 20.25%

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가족의 지지가 높지 않았다. 앞의 두 조건요인과 다르게 또래관계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비율은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14.84%, 미경험 집단에서 91.91%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31$). 부모의 통제수준, 자기통제 수준은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미경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긴장

(N=3380)

변수	가족긴장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부모(알코올, 도박, 약물)문제							
	양부모	한부모	경험	미경험	경험	미경험	경험	미경험	경험	미경험	N	%	p-value			
성별	N	%	p-value	N	%	p-value	N	%	N	%	N	%	N	%	p-value	
	남성	1546	51.19	187	51.94	0.7872	48	65.75	1685	50.95	0.0123	86	55.48	69	51.07	0.2828
	여성	1474	48.81	173	48.06		25	34.25	1622	49.05		69	44.52	1578	48.93	
학교	초등학교	979	32.42	107	29.72	0.2782	24	32.88	1062	32.11	0.3947	50	32.26	1036	32.12	0.6411
	중학교	1162	38.48	134	37.22		23	31.51	1273	38.49		64	41.29	1232	38.20	
	고등학교	879	29.11	119	33.06		26	35.62	972	29.39		41	26.45	957	29.6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78	5.89	171	47.50	<.0001	33	45.21	1501	45.39		25	16.13	324	10.05	0.0099
	200-400만원 미만	1639	53.97	134	37.22		35	47.95	1520	45.96		86	55.48	1678	52.03	
	400만원 이상	1212	40.13	55	15.28		5	6.85	286	8.65		44	28.39	1223	37.92	
거주지	대도시	1392	46.09	142	39.44	0.0031	10	13.70	339	10.25	0.5308	77	49.68	1457	45.18	0.5055
	중소도시	1383	45.79	172	47.78		39	53.42	1725	52.16		67	43.23	1488	46.14	
	읍면지역	245	8.11	46	12.78		24	32.88	1243	37.59		11	7.10	280	8.68	
맞벌이가정	맞벌이	2000	66.23	0	0	<.0001	49	67.12	1951	59.00	0.1623	85	54.84	1915	59.38	0.2612
	외벌이	1020	33.77	360	100		24	32.88	1356	41.00		70	45.16	1310	40.62	

조건의요인																
가족의 지지 수준																
	높음	625	20.70	51	14.17	0.0034	4	5.48	672	20.32	0.0017	23	14.84	653	20.25	0.1001
	높지 않음	2395	79.30	309	85.83		69	94.52	2635	79.68		132	85.16	2572	79.75	
부모의 통제 수준																
	높음	158	5.23	9	2.50	0.0238	4	5.48	163	4.93	0.8300	8	5.16	159	4.93	0.8968
	높지 않음	2862	94.77	351	97.50		69	94.52	3144	95.07		147	95	3066	95.07	
자기통제 수준																
	높음	644	21.32	72	20.00	0.5610	17	23.29	699	21.14	0.6564	26	16.77	690	21.40	0.1690
	높지 않음	2376	78.68	288	80.00		56	76.71	2608	78.86		129	83.23	2535	78.60	
포괄판계 만족도																
	높음	259	8.58	25	6.94	0.2915	8	10.96	276	8.35	0.4260	23	14.84	261	91.91	0.0031
	높지 않음	2761	91.42	335	93.06		65	89.04	3031	91.65		132	85.16	2964	8.0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표6> 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의 분포를 보여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남성과 여성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일반사용자군(36.75%)보다 스마트폰 중독군(43.40%)에서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31$). 월 가구소득과 거주지분포는 스마트폰 중독군과 일반사용자군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군(62.64%)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58.08%) 보다 맞벌이 가정의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고, 가정폭력경험 집단의 비중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p=0.0005$). 마지막으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도 중독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03$). 반면에 한부모와 양부모는 스마트폰 중독군과 일반사용자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N=3380)

변수	스마트폰 중독				p-value
	일반사용자군		중독군		
	N	%	N	%	
성별					
남성	1314	51.15	419	51.66	0.7976
여성	1255	48.85	392	48.34	
학교					
초등학생	847	32.97	239	29.47	0.0031
중학생	944	36.75	352	43.40	
고등학생	778	30.28	220	27.1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0	10.51	79	9.74	0.6469
200-400만원 미만	1346	52.39	418	51.54	
400만원 이상	953	37.10	314	38.72	
거주지					
대도시	1181	45.97	353	43.53	0.3905
중소도시	1165	45.35	390	48.09	
읍면지역	223	8.68	68	8.38	
맞벌이가정					
맞벌이	1492	58.08	508	62.64	0.0212
외벌이	1077	41.92	303	37.36	
가족긴장					
한부모 가정					
양부모	2292	89.22	728	89.77	0.6591
한부모	277	10.78	83	10.23	
가정폭력					
경험	43	1.67	30	3.7	0.0005
미경험	2526	98.33	781	96.30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99	3.85	56	6.91	0.0003
미경험	2470	96.15	755	93.09	

4. 대상자의 인터넷 주이용 콘텐츠 및 사용이유

<그림2>는 스마트폰 중독과 일반사용집단,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가정폭력 경험 여부,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여부에 스마트폰 콘텐츠 이용의 차이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치화한 그래프이다. 먼저 SNS는 일반사용자군에서 44.64%, 중독군에서는 48.11%가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게임은 일반사용자군에서 18.6%, 중독군에서 29.72%로 중독 청소년이 게임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학업용도, 음악감상, TV시청, 뉴스 및 웹서핑 등은 일반사용자군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부모와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의 콘텐츠 이용패턴을 살펴보면 SNS는 한부모와 양부모 가정이 비슷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게임의 경우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24.69%,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21.62%로 한부가정 청소년이 게임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학업용도, 음악감상, TV시청은 양부모 집단 청소년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뉴스 및 웹서핑의 경우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더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셋째로 가정폭력경험집단과 미경험 집단의 스마트폰 이용 콘텐츠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미경험집단에서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게임을 용도로 사용하는 집단은 폭력 미경험 집단보다 (21.68%) 경험집단에서 34.15%더 많은 사용률을 보였다.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음악, TV등 여가활동으로 사용한다는 비율(11.45%)이 가정폭력경험집단(9.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 (43.33%)에서 경험한 집단보다(36.36%)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게임, 학업용도, 음악 및 TV등 여가를 위한 활동은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과 <그림 4>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과 SNS 사용 이유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그림3>은 스마트폰 중독과 일반사용집단,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가정폭력 경험 여부,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집단의 SNS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이다. 모든 집단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위해’ SNS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중독군과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 <그림 4>에서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각 집단의 분포를 나타낸다. 공통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이용이유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부모와 양부모 가정청소년을 제외하고,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하거나,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된 집단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이 더 컸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자유로움, 해방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이 컸다. 가족긴장을 느낀 집단에서는 현실에서 비교적 성취감을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다른 자아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반면 가족긴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비교적 현실에서 받은 학업적, 관계적 스트레스나 억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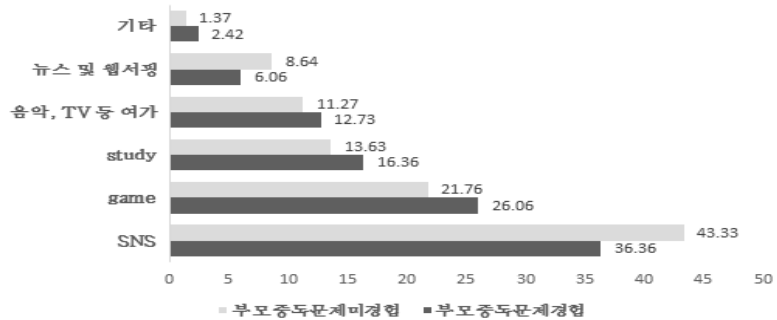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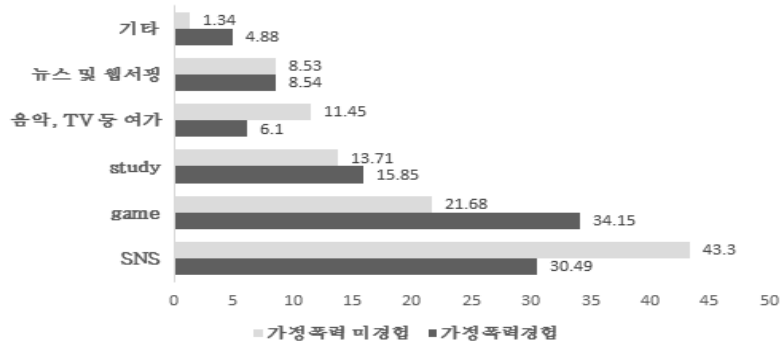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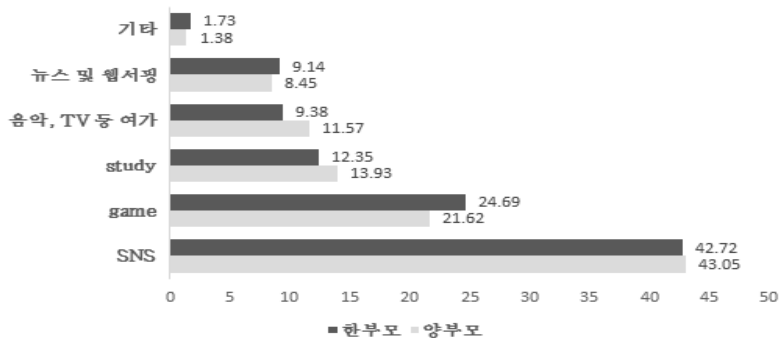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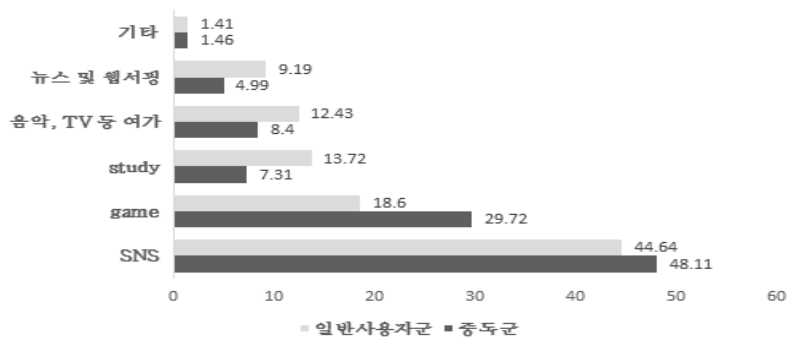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자의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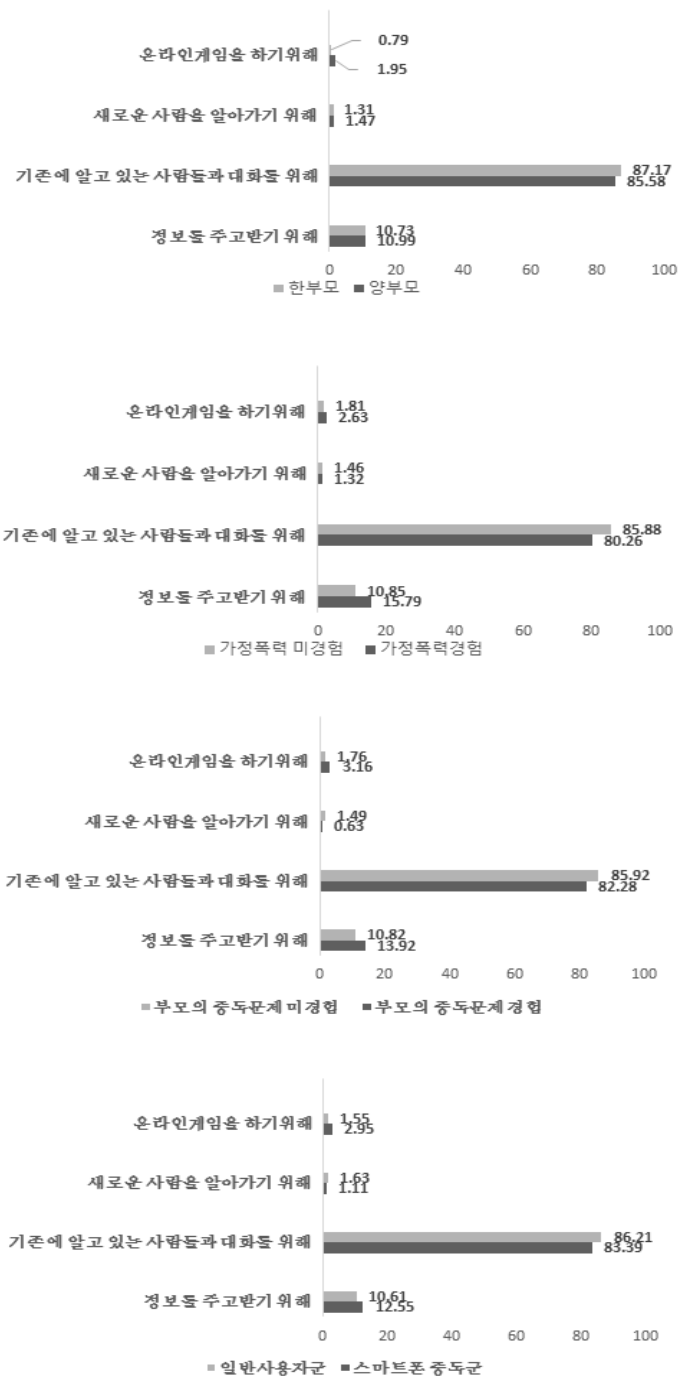


그림 3. SNS 사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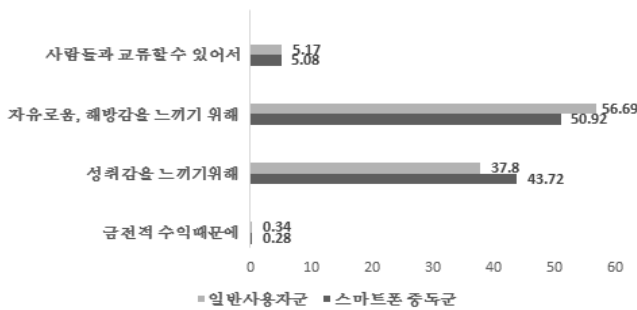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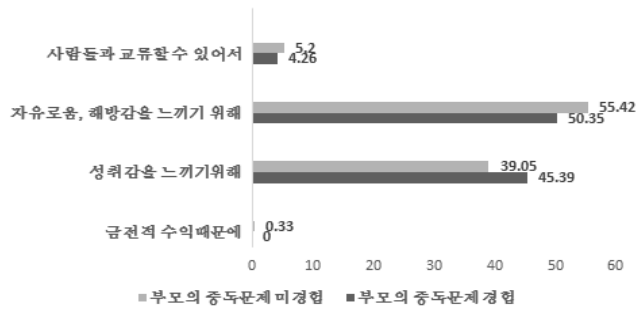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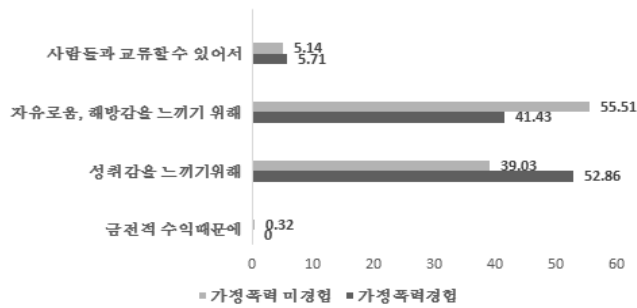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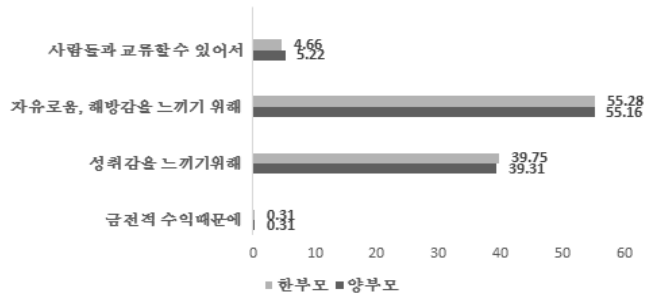


그림 4. 온라인 게임 이용 이유

5.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7>은 청소년의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앞서 한부모 가정을 제외한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긴장으로 인한 관찰된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가 실제 가족긴장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맥락과 혼란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와 .01 수준에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가족긴장에서 한부모 가정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폭력 미경험 집단에 비해 경험집단의 경우 (OR=1.723, 95%CI 1.217-2.440)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의 중독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OR=2.020, 95%CI 1.242-3.286)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이 (OR=1.344, 95%CI 1.104-1.635) 고등학생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OR=1.218, 95%CI 1.014-1.463) 외벌이 가정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다. 성별, 가구소득, 거주지역, 학업성취 만족도, 스마트폰 중독 예

방교육,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을 제외한 가정폭력,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 가족긴장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N=3380)

변수	스마트폰 중독	
	OR	(95% CI)
가족긴장		
한부모 가정	한부모	1.091 (0.801 - 1.488)
	양부모	1.0
가정폭력	경험	1.723 (1.217 - 2.440)***
	미경험	1.0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2.020 (1.242 - 3.286)***
	미경험	1.0
성별		
	남성	1.015 (0.866 - 1.191)
	여성	1.0
학교		
	초등학생	1.018 (0.824 - 1.259)
	중학생	1.344 (1.104 - 1.635)***
	고등학생	1.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918 (0.667 - 1.263)
	200-400만원 미만	0.944 (0.795 - 1.122)
	400만원 이상	1.0
거주지		
	대도시	0.953 (0.795 - 1.294)
	중소도시	1.083 (0.802 - 1.463)
	읍면지역	1.0
맞벌이가정		
	맞벌이	1.218 (1.014 - 1.463)**
	외벌이	1.0
학업성취 만족도		
	상	1.038 (0.882 - 1.222)
	하	1.0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경험	0.983 (0.822 - 1.175)
	미경험	1.0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예	1.066 (0.849 - 1.338)
	아니오	1.0

p**<0.05, p***<0.01

6.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련성에서 조건요인의 영향

다음 <표 8> - <표 11>는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조건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다. 조건요인으로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또래관계만족도, 자기통제를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조건요인(가족의 지지, 부모통제, 또래관계만족도, 자기통제)에 따라 가족긴장(한부모, 가정폭력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1)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에서(OR=3.602, 95%CI 1.679-7.727)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의 지지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는데 한부모 가정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가정폭력경험집단은 (OR=1.878, 95%CI 1.138-3.1) 미경험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모의 중독경험 집단은 (OR=1.607, 95%CI 1.104-2.340) 미경험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더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폭력경험 및 부모알코올·도박·약물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의 지지수준에 따라 조건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가족지지(조건의인)의 영향

변수	높음		가족의 지지 수준		높지 않음	
	OR	(95% CI)	OR	(95% CI)	OR	(95% CI)
가족 긴장						
한부모 가정	3.602	(1.679 - 7.727)***	0.832	(0.590 - 1.174)	1.0	
가정 폭력	3.337	(0.407 - 28.046)	1.878	(1.138 - 3.100)***	1.0	
부모 일교율·도박·악물문제						
미경험	2.280	(0.874 - 5.942)	1.607	(1.104 - 2.340)***	1.0	
미경험	1.0		1.0		1.0	
성별						
남성	1.077	(0.708 - 1.637)	0.974	(0.818 - 1.160)	1.0	
여성	1.0		1.0		1.0	
학교						
초등학교	0.689	(0.396 - 1.198)	1.125	(0.893 - 1.421)	1.0	
중학교	1.227	(0.736 - 2.046)	1.364	(1.101 - 1.689)***	1.0	
고등학교	1.0		1.0		1.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678	(0.287 - 1.601)	0.968	(0.682 - 1.372)	1.0	
200-400만원 미만	0.959	(0.595 - 1.442)	0.908	(0.751 - 1.098)	1.0	
400만원 이상	1.0		1.0		1.0	
거주지						
대도시	0.653	(0.308 - 1.427)	1.048	(0.751 - 1.469)	1.0	
중소도시	0.959	(0.460 - 1.999)	1.121	(0.747 - 1.562)	1.0	
읍면지역	1.0		1.0		1.0	
맞벌이 가정						
맞벌이	1.747	(1.067 - 2.862)	1.121	(0.804 - 1.369)	1.0	
외벌이	1.0		1.0		1.0	
학업성취 만족도						
상	0.853	(0.554 - 1.312)	1.081	(0.918 - 1.291)	1.0	
하	1.0		1.0		1.0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경험	0.879	(0.552 - 1.399)	1.050	(0.863 - 1.277)	1.0	
미경험	1.0		1.0		1.0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예	1.225	(0.697 - 2.152)	1.039	(0.808 - 1.336)	1.0	
아니오	1.0		1.0		1.0	

p***<0.05, p***<0.01

2) 부모의 통제

부모의 통제가 높은 집단에서는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승산비가 높았으나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집단에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OR=3.166, 95%CI 1.062-9.437) 더 높게 확인되었다.

반면에 부모의 통제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OR=1.986, 95%CI 1.202-3.28), 비슷한 결과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마트폰에 중독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OR=1.756, 95%CI 1.229-2.51). 또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OR=1.308, 95%CI 1.07-1.598)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 청소년(OR=1.276, 95%CI 1.054-1.544)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더 높았다.

표 9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부모 통제(조건 요인)의 영향

변수	높음		부모의 통제 수준		높지 않음	
	OR	(95% CI)	OR	(95% CI)	OR	(95% CI)
가족 긴장						
한부모 가정	1.355	(0.245 - 7.479)	1.107	(0.806 - 1.521)		
가정폭력	1.0		1.0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2.559	(0.306 - 21.408)	1.986	(1.202 - 3,280)***		
미경험	1.0		1.0			
미경험	1.648	(0.311 - 8.727)	1.756	(1.229 - 2.510)***		
미경험	1.0		1.0			
성별						
남성	1.074	(0.506 - 2.276)	0.997	(0.846 - 1.175)		
여성	1.0		1.0			
학교						
초등학교	1.276	(0.459 - 3.542)	1.003	(0.806 - 1.249)		
중학교	3.166	(1.062 - 9.437)**	1.308	(1.070 - 1.598)***		
고등학교	1.0		1.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0.356	(0.051 - 2.459)	0.955	(0.690 - 1.322)		
200-400만원 미만	0.649	(0.288 - 1.466)	0.952	(0.797 - 1.138)		
400만원 이상	1.0		1.0			
거주지						
대도시	1.404	(0.147 - 13.466)	0.953	(0.699 - 1.299)		
중소도시	3.969	(0.42 - 37.486)	1.03	(0.760 - 1.397)		
읍면지역	1.0		1.0			
맞벌이가정						
맞벌이	0.632	(0.281 - 1.420)	1.276	(1.054 - 1.544)***		
외벌이	1.0		1.0			
학업성취 만족도						
상	0.62	(0.283 - 1.359)	1.062	(0.898 - 1.256)		
하	1.0		1.0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경험	0.479	(0.200 - 1.146)	1.023	(0.852 - 1.229)		
미경험	1.0		1.0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예	0.976	(0.331 - 2.873)	1.053	(0.833 - 1.332)		
아니오	1.0		1.0			

p**<0.05, p***<0.01

3) 또래관계 만족도

또래관계만족도는 앞서 분석한 가족의 지지수준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래관계 만족도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에서(OR=3.132, 95%CI 1.058-9.270)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가정폭력,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학교급에서 중학생인 경우 (OR=2.801, 95%CI 1.287-6.098)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또래관계 만족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서는 가정폭력경험이 (OR=2.103, 95%CI 1.258-3.515),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이(OR=1.670, 95%CI 1.146-2.434)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인 경우 (OR=1.359, 95%CI 1.107-1.669), 맞벌이 가정인 경우(OR=1.241, 95%CI 1.025-1.503) 스마트폰 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

표 10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포래관계 만족도(조기요인)의 영향

변수	포래관계 만족도		높지 않음 (95% CI)
	OR	OR	
가족 긴장			
한부모 가정	3.132 1.0	0.996 1.0	(0.717 - 1.382)
가정 폭력	1.392 1.0	2.103 1.0	(1.258 - 3.515)***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	2.265 1.0	1.670 1.0	(1.146 - 2.434)***
성별			
남성	0.531 1.0	1.072 1.0	(0.907 - 1.266)
여성			
학교			
초등학교	0.986 1.206 1.0	1.018 1.359 1.0	(0.815 - 1.272)
중학교			(1.107 - 1.669)***
고등학교			
200만원 미만	1.151 1.018 1.0	0.911 0.929 1.0	(0.653 - 1.271)
200-400만원 미만			(0.776 - 1.113)
400만원 이상			
거주지			
대도시	0.752 1.382 1.0	1.026 1.124 1.0	(0.738 - 1.427)
중소도시			(0.812 - 1.555)
읍면지역			
팹별이	1.038 1.0	1.241 1.0	(1.025 - 1.503)***
외별이			
학업성취 만족도	0.964 1.0	1.045 1.0	(0.881 - 1.239)
높음			
낮지 않음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0.561 1.0	1.048 1.0	(0.869 - 1.264)
경험			
미경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0.933 1.0	1.048 1.0	(0.870 - 1.337)
예			
아니오			

p***<0.05, p***<0.01

4) 자기통제 수준

마지막으로 자기통제수준이 높은 경우 모든 긴장요인(한부모, 가정폭력경험,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데이터무제한요금제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OR=1.833, 95%CI 1.168-2.877)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통제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정폭력경험(OR=2.533, 95%CI 1.465-4.37) 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한 청소년(OR=1.807, 95%CI 1.233-2.648)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자기통제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기통제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OR=1.305, 95%CI 1.046-1.629)에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자기통제는 다른 조건요인보다도 가족긴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건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가족긴장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에서 자기통제 (조건요인)의 영향

변수	높음 (95% CI)		자기 통제 수준		높지 않음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가족 긴장						
한부모 가정	0.998	(0.490 - 2.033)	1.095	(0.774 - 1.550)		
양부모 가정	1.0		1.0			
가정폭력	0.820	(0.249 - 2.701)	2.533	(1.467 - 4.375)***		
미경험	1.0		1.0			
부모 일코을·도박·약물문제	1.841	(0.771 - 4.398)	1.807	(1.233 - 2.648)***		
미경험	1.0		1.0			
성별	0.707	(0.494 - 1.012)	1.106	(0.923 - 1.325)		
남성	1.0		1.0			
여성						
학교	1.161	(0.723 - 1.862)	0.971	(0.764 - 1.234)		
초등학교	1.525	(0.992 - 2.345)	1.305	(1.046 - 1.629)***		
고등학교	1.0		1.0			
가구소득	0.906	(0.453 - 1.811)	0.944	(0.657 - 1.357)		
200만원 미만	0.923	(0.631 - 1.351)	0.954	(0.785 - 1.159)		
200-400만원 미만	1.0		1.0			
400만원 이상						
거주지	1.165	(0.574 - 2.364)	0.879	(0.625 - 1.238)		
대도시	1.367	(0.684 - 2.732)	1.009	(0.721 - 1.413)		
중소도시	1.0		1.0			
읍면지역						
맞벌이가정	1.302	(0.869 - 1.953)	1.197	(0.973 - 1.471)		
맞벌이	1.0		1.0			
외벌이						
학업성취 만족도	0.710	(0.465 - 1.084)	1.134	(0.946 - 1.359)		
높음	1.0		1.0			
높지 않음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1.271	(0.864 - 1.869)	0.914	(0.746 - 1.120)		
경험	1.0		1.0			
미경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1.833	(1.168 - 2.877)***	0.883	(0.675 - 1.156)		
예	1.0		1.0			
아니오						

p***<0.05, p***<0.01

VI. 고찰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가족긴장의 관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 집단을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및 스마트폰 콘텐츠 사용패턴과 가족긴장(한부모 가정, 가정폭력,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긴장을 경험하더라도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요인(가족의지지, 부모의 통제, 자기통제력, 또래관계 만족도)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가족긴장 요인 중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경험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한부모 가정이라는 가족구조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가족긴장을 경험하더라도 스마트폰 중독위험에 바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지지, 부모통제, 자기통제력, 또래관계 만족도와 같은 조건요인에 따라 중독위험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각각 검증한 결과 한부모 가정을 제외한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4가지의 모든 조건요인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가정은 Agnew(1992)의 일반긴장에 근거한 두 번째 긴장인 “긍정적 자극의 소멸(Removal of Positively Valued Stimuli)”에 해당하며 개인에게 소중한 존재의 상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망이나, 가족구성원과의 이별 등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에 미치는 주요 가족긴장요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혼란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독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스마트폰 사용패턴에 대해 양부모 가정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의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은 다른 가정의 자녀에 비해 자아통제감 및 자아가치감이 낮고, 부모의 이혼, 죽음으로 인해 심리 정서적으로 문제를 경험하거나 (borgers, Dronkers & Van Praag, 1996; 조아미, 임영식, 2009) 지위 비행²⁾을 많이 저지르게 되고, 흡연과 음주, 심지어 약물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하였다(Otten, R et al, 2007). 하지만 한부모 가

2)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은 문제행동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커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에 비해 청소년의 폭력이나 약물사용, 가출과 같은 문제행동의 단순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소득, 가정 폭력과 같이 구조에서 비롯되는 위험요인을 통제한 후 가족의 유형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신혜섭, 2005).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개인의 내적 보호요인(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과 사회적 보호요인(부모와 긍정적 관계, 의사소통, 또래나 교사의 지지 등)에 따라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양부모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여 문제행동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남현주, 윤형식, 2013). 이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자녀의 부모화 경험은 오히려 자녀에게 긍정적 강화를 주게 되어, 규범에 순응하고, 책임감이 증가하는 등 심리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성격은 가족구성원의 관계나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긴장을 경험하더라도 보호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 행동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은 Agnew(1992)가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하는 세 번째 긴장인 “부정적 자극의 직면(Presentation of Noxious Stimuli)”에 속하며 아동학대, 가혹행위와 같이 가정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긴장(strain)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의 경우 경험 집단과 미경험집단 간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가 있었으며, 혼란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가정폭력의 독립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폭력 등의 부정적 자극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긴장이론은 지지하는 결과였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며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는데 (Edleson, 1999), 이와 같은 정서문제는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언급되는 문제이며, 실제로 부부의 언어 및 심리적 폭력을 목격한 경험과 청소년의 언어, 심리, 신체적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형모, 2007). 나아가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피학대경험이나 가정폭력 경험은 청소년인터넷 중독 (김재엽, 2011)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석말숙, 2014)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하는데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약화되고, 부정적 자아가 형성됨

에 따라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며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 있다.

한편,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에서 인터넷 사용패턴을 살펴보면 게임 콘텐츠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온라인 게임사용 이유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지지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우울감,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한 열등감(서영숙, 2002)으로 현실세계를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게임이라는 가상세계에서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유대감과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김재엽, 2011)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는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일반긴장이론의 세 번째 긴장인 “부정적 자극의 직면(Presentation of Noxious Stimuli)”에 포함될 수 있다. 분석결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은 문제 미경험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부모 알코올·도박·약물문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중에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서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의 문제음주는 일반적으로, 학대, 가

정폭력, 정신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에게 수치심, 두려움, 분노, 불안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채영, 2000; Deutsch, 1982). 이로 인해 부모의 문제음주를 경험한 자녀들은 대인관계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공격성, 음주행동 등 사회 부적응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어(김규수, 2006)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중독문제가 자녀의 중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 예로, 도박에 중독된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부모역할 부재, 높은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자녀 또한 강박적 도박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본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MR Gottfredson & T Hirschi, 1990).

한편,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인터넷 사용패턴을 살펴보면, 게임 콘텐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을 느끼려고 게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부모가 알코올·도박·약물을 문제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은 부모의 갈등을 자주 목격하며, 학교나 지역사회에 적응, 학업적 성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비하와 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현실에서 도피하여 게임속의 가상세계에서 이 부정적 상황과 감정들을 잊고 해소하게 되며, 그 속에서 만족감과 게임 속 현실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성취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대로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와 같은 가족긴장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반긴장이론에서 긴장을 겪은 청소년이 누구나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만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조건요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이라고 해서 모두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지지, 부모의 통제, 또래관계와 자기통제에 따라 가정폭력이 스마트폰 중독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에서 가족의 지지의 조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느 가족구성원에게 가정폭력 혹은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지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문제행동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및 부모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청소년 수가 비교적 적고, 폭력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가족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장덕희, 2010) 가족긴장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지지가 높은 사람이 매우 적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표

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족 긴장과 가족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 중에 가족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은 100% 부, 모 모두와 거주하고 있었으며, 75%가 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반면에 가족의 높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에서는 83%만이 부, 모 모두와 동거하고 있었고, 74%가 형제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가 알코올·도박·약물 문제를 경험한 집단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는데,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 문제를 경험한 집단 중에서 가족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 91%가 부, 모 모두와 거주하고 있었으며, 83%가 형제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에 가족의 높지 않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에서는 85%만이 부, 모 모두와 거주하고, 71%만이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폭력에 노출되거나, 부모가 알코올·도박·약물 문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다른 구성원이 존재한다면 청소년에게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결과는 기존 Bolen(2005)과 Shillinglaw(1998)의 연구에서 한쪽 부모가 가해할 경우, 다른 한쪽의 지지가 자녀의 적응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에서 부모통제의

조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통제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부모 중 한사람으로부터 가정폭력경험하거나 부모가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사람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문제행동을 통제하는 조치를 가한다면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애착과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감독과 통제는 청소년의 비행을 낮추는데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Patterson, 1982), 부모의 애착보다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이 같다 (Smith & Stem, 1997). 또한, 결과에서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족긴장경험 집단의 부모의 통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가족의 지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부모의 동거상태를 그룹 간 비교한 결과,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중에서 부모의 통제가 높은 집단은 모두 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부모의 통제가 낮은 집단은 84%만이 부모 두 사람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가 알코올·도박·약물문제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 중 부모의 통제가 높은 집단은 모두 부모 두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지만, 부모의 통제가 낮은 집단은 86%만이 부모 두 사람과 거주하고 있어, 가족긴장의 원인이 되는 구성원 이외에 다른 부모의 통제적 역할이 존재했

다고 기대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가정폭력경험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가 곧 부모 역할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에 부정적 사건과 자극이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상실하지 않고 통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이 스마트폰 중독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에서 자기통제의 조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통제는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변수로, 일반긴장이론에서 충동성과 함께 청소년의 범죄 및 문제행동을 조건적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으로 다루어졌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무신경하며, 충동적이고, 근시적이고, 위험행동을 선호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강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의 영향을 고려하기 보다는 비행으로부터 얻게 되는 즉각적 쾌락 및 이득을 추구하게 되어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세 조건요인에서 나타났던 조건적 영향보다 자기통제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에서 가족긴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자기통제가 가장 중요한 조건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에 있어 다른 청소년 문제행동보다도 자기통제력이 매우 중요

한데, 그 이유는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인 스마트폰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과 즉시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용가능하고(송혜진, 2011), 교사나 부모의 제재나 통제가 없을 때에는 청소년 개인의 통제력을 발휘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해야하기 때문이다. 자기통제는 일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서도 중요한 보호요인이지만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가족긴장경험집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의 연관성에서 또래관계 만족도의 조건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에게 또래관계는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이다. 청소년은 가족 내 부정적 자극에 노출되더라도 또래 친구와 긍정적 상호작용과 친밀감 유지(박지영, 2012)는 가정불화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심리를 완화시켜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보완(홍주영, 2002)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이 속해있는 또래집단에서 갈등과 부정적 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 외로움, 우울,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김선아, 2015). 이는 스마트폰 중독위험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현실세계의 또래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SNS를 통한 의사소통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현실에서의 거부 경험과는 반대되는 온라인 환경 속 자아존중감과 자기확신(self reassurance)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강화시킬 수 있다(이정은, 배성만, 2015). 스마트폰 중독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이 SNS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볼 때, 또래관계만족이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스마트폰이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이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대인관계만족도와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돈규, 2003).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또래관계만족의 조건적 영향은 가정 폭력 및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가 미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심리적 불안정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확인하였다.

2. 합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요인을 가족의 보호적 관점에서 연구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가정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사건의 경험에 관심을 두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위험요인을 발굴했다는 것에 장점을 지닌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가정을 파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위험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요인을 제시하여, 가족긴장 경험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미가 있다.

또한 현 정책이 지정한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가정 중 한 형태인 한부모 가정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실증하여, 기존 정책의 대상자의 조정 및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부모라는 가족구조 보다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나, 부모의 알코올, 약물 및 도박문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로 정책적 개입을 시행할 때 가족의 형태나 구조적 관점보다는 가정의 부정적인 사건 및 자극을 구체적으로 찾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힐

수 없었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정책에서 지정한 스마트폰 중독 취약가정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추가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청소년 문제행동 및 비행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첫 논문으로 음주, 흡연, 범죄와 같은 일반적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어왔던 가구소득, 성별, 한부모 여부 간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반적 청소년 문제행동과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으로서 가족긴장, 보호요인으로서 또래관계, 부모통제, 자아통제, 가족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기존 청소년 비행 및 문제행동과 공통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가 가정폭력,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호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향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상담이나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또래관계나 가족의지지, 부모의 통제보다도 자기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문제의 원인인 가정불화, 가정폭력, 부모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일지 모르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완화에 자아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자기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1차적으로 사회적 압력, 피드백, 보상과 같이 환경을 변화시켜 외적동기 유발을 시도하고, 2차적으로 스스로 욕구, 흥미, 자율성을 다룸으로써 개인의 내적동기를 가지고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 알람을 활용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절제하기, 스마트폰 사용시간 목표설정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할 특이점은 콘텐츠 이용이유에 관한 연구결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가 중독이라는 부정적 관점 뿐 아니라 긍정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가 주로 다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청소년에게 충분히 유용하고 긍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가상세계 속에서 탐험적 시도를 통해 자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사회성 형성을 위한 통로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은 단순히 비판적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 사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스마트폰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종류별 유용성과 긍정적 사용에 관한 상세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연구의 주된 관심은 아니었지만,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혼란요인을 통제하고도 맞벌이 가정과 중학생(학교급)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맞벌이가정 청소년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향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면연구의 한계로 인해 가족긴장과 스마트폰 중독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가족 내 위험요인이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둘째, 조사자료로 인한 한계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연구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칠 수 있는 다른 개인 심리요인, 또래 및 학교요인, 스마트폰 기기적 특성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발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또한, 가정폭력 유형과

강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경험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과 부모의 알코올·도박·약물문제 경험 또한 가벼운 일탈수준의 문제인지 중독문제인지 구별할 수 없어 구체적인 해석을 할 수 없었다. 한부모 가정 또한 사별로 인한 구조적 변화인지, 이혼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한부모 가정의 원인에 따른 풍부한 분석을 할 수 없었고, 양부모의 경우 재혼가정인지, 양친가정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미칠 수 있는 가족구조의 영향을 감지할 수 없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의 성격은 콘텐츠마다 성격이 매우 다를 것으로 다를 것이라 예상되지만, 자료의 한계로 콘텐츠에 사용 및 사용이유에 대한 기초분포만을 파악하여, 콘텐츠 사용 패턴과 위험요인을 단정 지어 결론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휴학, 중퇴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들은 정규 교과과정과 교사 및 또래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어 또 다른 스마트폰 중독의 취약집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이 집단의 스마트폰 중독 양상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 여부”는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스

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마트폰 고유의 특징인 데이터 요금제, 스마트폰 요금지불의 주체, Wi-Fi 망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II. 참고 문헌

- Agnew, R., & White, H. R. (1992).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An. Criminology*, *30*, 475.
- Bae, S. M.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learning motivation, friendship satisfaction, and the addictive use of smartphones wi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South Korea: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6*(5), 513–531.
- Bolen, R. M. (2005). Attachment and family violence: Complexities in knowing. *Child abuse & neglect*, *29*(8), 845–852.
- Borgers, N., Dronkers, J., & Van Praag, B. M. (1996). The effects of different forms of two- and single-parent families on th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in Dutch secondary education.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2), 147–169.
- Deutsch, C., DiCicco, L., & Mills, D. J. (1982). Services for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Prevention, intervention and treatment: Concerns and models* (pp. 147–17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Edleson, J. L. (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8), 839–870.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Glueck, S. (1962). *Family Environment and Delinquency*, by S. & E. Glueck: publisher not identified.

Griffiths, M. (1999). Internet addiction: Fact or fiction? *PSYCHOLOGIST –LEICESTER–*, 12(5), 246–251.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acobs, D. F., Marston, A. R., Singer, R. D., Widaman, K., Little, T., & Veizades, J. (1989). Children of problem gamblers.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5(4), 261–268.

Jeong, S.-H., Kim, H., Yum, J.-Y., & Hwang, Y. (2016). What type of content are smartphone users addicted to?: SNS vs. gam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0–17.

Kim, Y., Jeong, J.-E., Cho, H., Jung, D.-J., Kwak, M., Rho, M. J., . . . Choi, I. Y. (2016). Personality Factors Predicting Smartphone Addiction Predisposition: Behavioral Inhibition and Activation Systems,

- Impulsivity, and Self-Control. *PloS one*, *11*(8), e0159788.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 Otten, R., Engels, R. C., van de Ven, M. O., & Bricker, J. B. (2007). Parental smoking and adolescent smoking stages: the role of parents' current and former smoking, and family structur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0*(2), 143–154.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Vol. 3): Castalia Publishing Company.
- Shillinglaw, R. D. (1998). *Protective factors among adolescents from violent families: why are some youth exposed to child abuse and/or interparental violence less violent than others?*
- Smith, C. A., & Stern, S. B. (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The social service review*, 382–420.
-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Lippincott.
- Toda, M., Nishio, N., & Takeshita, T. (2015). Predictive Factors for Smartphone Dependence: Relationship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ronotype, and

- Depressive State of University Students. *Ope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12), 456.
- Vaillant, G. E., & Milofsky, E. S. (1982). The etiology of alcoholism: a prospective viewpoint. *American Psychologist*, 37(5), 494.
- 강경래. (2014). 소년비행의 원인으로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 *소년보호연구*(26), 371-409.
- 고재수. (2014). 가족기능성과 학교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140-151.
- 권미란, & 윤치웅. (2010). 가족형태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10(1), 129-135.
- 김교현.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 김교현. (2006). 중독과 자기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63-105.
- 김교현. (2007). 중독, 그 미궁을 헤쳐 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677-693.
- 김규수. (2006).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부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2(2), 101-125.
- 김나예. (2015).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게임중독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3), 145-156.
- 김동일, 정여주, 이윤희, 김병관, & 전호정. (2016). 청소년 스마트

- 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7(3), 319-335.
- 김선아. (2015). 논문: 부모학대, 부적또래관계, 휴대폰의존과 중학교 청소년우울과의 관계성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43(단일호), 31-56.
- 김영미. (201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223-242.
- 김재엽, & 박수경. (2001).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의 서비스 연계실태와 관련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47(11), 107-147.
- 김재엽, 이지현, & 윤여원.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4), 59-82.
- 김정현, & 정인경. (201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1), 111-126.
- 김현수, 채규창, 임연정, & 신윤미. (2004).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의 가정내 변인연구. *신경정신의학*, 43(6), 733-739.
- 김형모, 이숙진, 서해정, 최은정, 김은정, & 문순희. (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1), 53-77.
- 김혜련, 정윤경, & 박수경. (2010). 부모의 알코올 중독 여부에 따른 자녀역할과 청소년 자녀의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267-293.
- 김혜련, & 최윤정. (2003).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자녀의 적응: 부

- 모역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단일호), 37-69.
-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 문두식, & 최은실.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13-236.
- 미래창조과학부 (2015). 제 2차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 종합계획
- 박경원, & 김경신. (2015).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51-74.
- 박민정, 류소연, 박종, & 한미아. (2015). 일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시간과 수면부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0(1), 50-61.
- 박성복, & 황하성. (201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한국언론학보*, 58(4), 289-311.
- 박주희, & 신현숙. (2014). 가정폭력이 아동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291-315.
- 박지영, 김귀애, & 홍창희.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151-169.
- 배성만. (2014). 연구논문: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 만족도가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

- 소년학연구, 21(11), 271-290.
- 서영숙, & 박옥임. (2002). 연구논문: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7(2), 51-73.
- 석말숙, & 구용근. (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05-928.
- 송혜진. (2011).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SNS 중독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 31-49.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단일호), 153-182.
- 신혜섭. (2005). 가정폭력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이. *가족과문화*, 17(2), 63-88.
- 신호경, 이민석, & 김홍국. (2011). 모바일 사용행동에 대한 실증 연구: 스마트폰 사용 중독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 양돈규. (2003). 연구논문: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대인관계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0(3), 481-500.
- 여종일. (2016). 연구논문: 남녀중학생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증상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 129-152.
- 오주. (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요인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24(1), 47-76.
- 유채영. (2000). *문제음주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변화전략 수*

- 립을 위한 동기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상준.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따른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비교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2), 55-79.
- 이성식. (2003).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15, 85-105.
- 이성철, 최태영, 우정민, 김지현, 서민재, 곽상규, & 이종훈. (2014).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 폰 중독과 우울, 사회 불안의 상관 관계. *생물치료정신의학*, 20(3), 212-218.
- 이시연. (2014).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759-771.
- 이재분, 현주, & 박효정. (2003). [연구보고 03-R 39]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228.
- 이정은, & 배성만. (2015). 대인관계 만족도, 인터넷 게임중독 및 정서적 문제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687-701.
- 이충권, 양혜린, & 윤영지. (2015). 가족구조 결손과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부모의 양육태도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상태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4), 23-35.
- 장덕희. (2010). 보호요인이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21-43.

- 장여옥, & 조남익. (2014).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37-156.
- 전대성, & 김동욱. (2015).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3), 159-18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미디어 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 조아미, & 임영식. (2009). 가족구조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지위비행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6(1), 137-154.
- 최인재, 이기봉, 김청송, & 김진호. (2010). 청소년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63-125.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 홍주영, &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황하성, 손승혜, & 최윤정. (2011).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5(2), 277-313.
- kt경영경제연구소. (2015). 모바일 트렌드 및 전망

Abstract

The effect of family strain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schools :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GST)

Hye-Jin Kim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With emerging addiction problems of smartphone and its serious social issues, recent concerns have focused on predi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and its policy solution. However, family-related factors for smartphone addiction of teenagers have been concentrated on identifying the protective factors. Also, the risk factors of smartphone addiction are not considered in the selection of target population for smartphone addiction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mily risk factors of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Agnew's general strain theory.

Methods

We used the data from 2013 national survey on Internet usage and utilization data from the National Information Agency and the sample consists of 3380 adolescents. Independent variable is family strain (negative stimuli and experiences in family) including single-parent families, domestic violence, parent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Dependent variable is smartphone addiction (S-scale) including potential risk group and the high risk group of smartphone addiction. Lastly, condition variables, factors that conditionally influence the effects of family strain on smartphone addiction, includes family support, parental control, self-control, and friendship quality. These conditional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high" and "not high" group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family strain on the smartphone addiction and sub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ndition factors in association between family strain and smartphone addiction.

Results

First, in terms of analyzing the effect of family strain on smartphone addic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between single-parent family and their counterpart. However, adolescents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OR=1.7, 95% CI 1.2-2.4), and exposed to parent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OR=2.02 95% CI 1.2-3.3)

were at increased risk for smartphone addiction. Second, we foun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strain and smartphone addiction was not significant in adolescents with “high” level of family support, parental control, self-control, and friendship quality. In addition, self-control wa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ain and smartphone addiction

Conclusions

First, although single parent family was not identified as a risk factor for the smartphone addiction,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parent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risk factors for predicting smartphone addiction of teenagers. However, even teenagers had experience of family strain(domestic violence, parent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had an increased likelihood of smartphone overuse, having “high” level of family support, parental control, self-control, or friendship quality could protect against it.

Keyword: family strain, smartphone addiction, adolescents, general strain theory, single-parent family, domestic violence, parental alcohol, gambling, and drug problems

Student Number: 2015-24030